논어 17편 양화 1장 · 원문·풀이

陽貨欲見孔子，孔子不見，歸孔子豚。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遇諸塗。謂孔子曰：「來，予與爾言。」曰：「懷其寶而迷其邦，可謂仁乎？」曰：「不可。」「好從事而亟失時，可謂知乎？」曰：「不可。」「日月逝矣，歲不我與。」孔子曰：「諾，吾將仕矣。」

독음 · 양화욕견공자 공자불견 귀공자돈 공자시기무야 이왕배지 우저도 위공자왈 래 여여이언 왈 회기보이미기방 가위인호 왈 불가 호종사이기실시 가위지호 왈 불가 일월서의 세불아여 공자왈 낙 오장사의

쉬운 풀이(요약) · 양화는 공자에게 재능을 감추고 때를 놓치느냐며 벼슬을 권했다. 공자는 기회를 보아 나아가겠다고 답했지만 그를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글자 뜻과 음(대표 훈음 ·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

陽 볕 양 양 / 貨 재화 화 화 / 欲 욕심낼 욕 욕 / 見 볼 견 견

孔 구멍 공 공 / 子 아들 자 / 不 아닐 불 / 歸 돌아올 귀 귀

豚 돼지 돈 돈 / 時 때 시 / 其 그 기 / 亡 망할 망 망

也 어조사 야 / 而 말이을 이 / 往 갈 왕 왕 / 拜 절 배 배

之 갈 지 / 遇 만날 우 우 / 諸 모든 제 제 / 塗 바를 도 도

謂 고할 위 위 / 曰 가로 왈 / 來 올 래 / 予 자기 여 여

與 너울너울할 여 여 / 爾 너 이 이 / 言 말씀 언 언 / 懷 품을 회 회

寶 보배 보 보 / 迷 미혹할 미 미 / 邦 나라 방 방 / 可 옳을 가 가

仁 어질 인 인 / 乎 어조사 호 / 好 좋을 호 / 從 좇을 종 종

事 일 사 사 / 亟 빠를 극 극 / 失 잃을 실 실 / 知 알 지

日 날 일 일 / 月 달 월 월 / 逝 갈 서 서 / 矣 어조사 의

歲 해 세 세 / 我 자기 아 아 / 諾 대답할 낙 낙 / 吾 자기 오 오

將 장차 장 장 / 仕 벼슬할 사 사

저본: 위키문헌 論語 ·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